

## 한국시리즈 MVP

## ‘양’ 손에?

## 정규시즌 MVP



오늘 2017 타이거뱅크 KBO 시상식 KIA 양현종 22년만에 토종 선발 20승·다승 1위 ‘최고의 시즌’

헥터 승률상·김선빈 타율상·버나디나 득점상·최형우 출루율상 수상…신인왕은 넥센 이정후 확실시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사상 최초의 한국시리즈와 정규시즌 MVP 동시 석권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6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2017 타이거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에서는 올 시즌 KBO리그 최고의 활약을 한 정규시즌 MVP와 신인왕이 선정되고, KBO리그와 퓨처스리그(2군)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신인왕은 ‘바람의 손자’ 이정후(넥센 히어로즈)의 수상이 확실시된다.

이종범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인 이정후는 고졸 신인 최초로 전경기(144경기) 출장에 나서 타율 0.324(552타수 179안타), 111득점, 12도루라는 뛰어난 성적을 냈다. 이정후는 역대 신인 최다 안타(종전 서용빈 157개)와 최다 득점(종전 유지현 109개) 기록까지 잡아치우면서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신인왕의 꿈을 이룰 전망이다.

이정후가 시상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양현종의 등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현종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0승을 수확하면서 헥터와 32년 만에 ‘동반 20승’이라는 기록을 작성했다. 토종 선수로는

22년 만에 쓰인 선발 20승이다. 다승 공동 1위의 양현종은 승률 2위(0.769), 평균자책점 5위(3.44), 탈삼진 3위(158개)에 오르며 SK 와이번스의 최정과 함께 강력한 MVP 후보로 꼽힌다.

양현종의 수상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한국시리즈, 정규리그 통합 MVP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양현종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한 2017 한국시리즈에서 2차전 완봉승에 이어 5차전 세이브로 팀의 ‘V11’을 이끌면서 한국시리즈 MVP에 선정됐다.

MVP 투표는 정규시즌 종료 후인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올 시즌

KBO 리그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07명의 투표인단은 MVP의 경우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 신인왕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점수로 차등을 두어 투표를 했다. 개인별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가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양현종이 다시 한번 MVP로 호명이 되면 트로피와 함께 3910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스티어링(2.0 터보 드림에디션)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앞선 한국시리즈 MVP 부상 역시 스티어링이다.

KBO 신인왕 및 개인 부문별 1위 선수,

우수 심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퓨처스리그는 북부와 남부 2개 리그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에게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돌아간다.

한편 KIA에서는 양현종과 함께 공동 다승왕에 오른 헥터가 승률상도 받는다. 김선빈(타율상), 버나디나(득점상), 최형우(출루율상)도 부문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선빈이 7일 오른쪽 발목 뺏조각 제거술 및 외측인대 봉합술을 앞두고 있어 시상식 참가가 어려운 가운데, 출루를 미룬 버나디나는 수상자로 시상대에 오를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2017 시즌 성적

| 다승 20승                       | 공동 1위 |
|------------------------------|-------|
| 승률 0.769                     | 2위    |
| 평균자책점 3.44                   | 5위    |
| 탈삼진 158개                     | 3위    |
| WAR 5.20<br>(단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 3위    |

## “애프로야구챔피언십 멤버로 도쿄 올림픽까지 가고 싶다”

선동열 대표팀 감독 출사표

25명은 한국 야구의 미래  
개인 기량 대만·일본 앞질러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다

선동열(54)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출전하는 25명의 선수가 내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짊어지길 기대했다.

선 감독은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대표팀 첫 훈련을 앞두고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젊은 선수들, 유망한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선발했다”며 “감독으로 맞는 첫 공식 대회인데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다음 달 16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17 APBC에서 일본, 대만의 젊은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만 24세 이하 혹은 프로 3년 차 이하 선수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다만 나이와 연차와 관계없이 와일드카드 3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와일드카드로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선 감독은 “일본, 대만은 와일드카드를 써서 팀이 강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APBC 2017)’에 참가하는 야구 국가대표팀이 공식 훈련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이나 프리미어, 올림픽 등을 고려해 대표팀을 선발했다”며 “우리 선수들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절대 약하지 않다. 선수 개개인을 보면 그 기량이 일본, 대만 이상”이라고 말했다.

4일 소집된 대표팀은 5일부터 13일까지 잠실구장과 고척 스카이돔에서 훈련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8일과 10일 오후 2시 넥센 히어로즈와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고, 12일 오후 6시에는 경찰야구단과 연습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선 감독은 “사실 훈련 기간에 기량을 향상할 수는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컨디션 관리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전 감각인데, 3차례 연습경기를 통해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선 감독은 대회 첫 경기로, 16일 오후 7시에 펼쳐지는 한·일전에 나설 선발 투수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 포스트시즌을 보면 좋은 볼을 가진 젊은 선수들이 긴장하면서 자기 볼을 못 던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올

해에는 긴장하지 않고 자기 볼을 잘 던졌다. 이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 25인 엔트리 중에 도쿄돔에 가본 선수가 1명뿐이다. 길게 생각하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있다”며 “와일드카드를 안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25인이 한국 야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더 도쿄돔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싶었다. 25인 선수들이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까지 잘해준다면 내 욕심으로는 그때도 이 25명 그대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흠런 치는 투수 오타니 잡아라…몸 달은 ML 미·일 선수계약협정 조율 중…관심 집중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 개막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몸이 달았다.

‘흠런 치는 투수’로 일본프로야구를 들썩이게 한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3·닛폰햄 파이터스·사진)의 메이저리그행 여부가 아직 결정 나지 않아서다.

오타니는 이미 올 시즌 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빅리그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MLB 사무국, MLB 선수노조, 일본 야구기구가 미국·일본 선수계약협정 경신을 둘러싸고 이견을 조율 중이어서 그 전까지 오타니나 닛폰햄, 메이저리그 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5일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하는 MLB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일 선수협정이 만료된 뒤 양측은 아직 새로운 협정을 도출하지 못했다.

포스팅시스템으로 오타니를 메이저리그에 수출하는 닛폰햄 구단이 보상액을 얼마나 받느냐가 새 미·일 선수협정의 핵심이다.

작년까지 미·일 선수협정 아래에선 닛폰햄 구단은 포스팅시스템에서 나온 협상응찰료를 이적료 성격의 보상액으로 최대 2000만 달러(약 223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적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MLB 사무국이 포스팅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하는 일본 선수의



경우 보장 금액의 일정 비율만 이적료로 일본 구단에 주는 것을 골자로 새 협정을 추진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게다가 MLB 사무국과 MLB 선수노조의 새 노사협약에 따라 25세 미만 해외 선수의 경우 1년간 최대 575만 달러로만 계약하도록 바뀌면서 일본 구단이 받을 수 있는 이적료는 더욱 줄어들었다.

일본야구기구는 오타니가 비록 25세 미만이나 일본에서 5년간 뛰었다면서 포스팅시스템에 예외 조항인 ‘오타니 룰’을 인정해달라며 MLB 사무국에 맞서는 형국이다. MLB 사무국이 예외 조항을 인정하면 닛폰햄은 예전처럼 최대 2000만 달러를 이적료로 쟁길 수 있다.

뉴욕 포스트는 MLB 사무국은 예외 조항 인정에 적극적인 데 반해 MLB 선수노조가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투좌타인 오타니는 올해까지 투수로서 통산 42승 15패, 평균자책점 2.52를, 타자로선 타율 0.286에 홈런 48개, 166타점을 올렸다. /연합뉴스